

여수단지, 태풍으로 “순간정전”

LG화학 · 한화케미칼 포함 6곳 피해 입어 ... 생산차질 불가피

석유화학기업들이 밀집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8월28일 새벽 순간 정전이 발생해 일부가 가동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단지 석유화학기업들은 단지의 한국전력 변압기 파손으로 8월28일 오전 6시55분께 1-2초 정도의 순간 정전이 발생했다.

순간정전 피해가 발생한 곳은 LG화학, 한화케미칼, 대림산업, 금호석유화학, 여천NCC, 호남석유화학 등 6곳으로 파악됐다.

해당기업들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 모두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가동률을 최초 0%에서 100%로 올리는 과정에서 일부 생산차질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순간정전이 발생하자 곧바로 자체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조업중단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B사 관계자는 “순간정전이 일어날 때 비상발전기를 가동해도 공정에 따라 즉각 재가동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 큰 피해는 아닐지라도 일부 생산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전에 따른 자세한 피해규모와 피해액은 아직까지 산정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28>